

온누리신문

광

전국 18개 교회 사모들, 실만한 물가로 광온누리에 모여 사랑과 섬김의 릴레이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 살리길



“슬픔이 변화되어 춤이 되게 하시
는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박효숙
사모, 사랑과 행복나눔교회, 실만한
물가 4기)

국내 미자립 교회 사모들을 광
으로 초청하여 그들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는 광온누리교회 주
최 ‘사모블레싱-실만한 물가’가 별
써 4기를 맞았다. 지난 10월 28일
부터 31일까지 총 3박 4일의 시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인 18명의 사
모들은 아름다운 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바다를 마음껏 누렸
다. 나이도, 지역도, 교파도 전부 제
각각이지만 한 교회의 사모로서 주

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동질감
으로 18명의 사모들은 뜨겁게 연합
할 수 있었다.

광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환
영을 받으며 광에서의 첫 번째 일정
을 시작한 사모들은 자기 소개와 나
눔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
졌다. 이어서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광 누리기가 시작되었다. 광 남부와
중부 관광지를 다니며 사진도 찍고,
멋진 태평양의 풍광을 내려다보며
식사를 하기도 했다. 한적한 비치에
서 물놀이를 하고, 정글투어에 참여
해 짙 라인과 오프로드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 만한 물가를 통하여 사역자
의 아내이기 전에 활발하고 솔직했
던 주의 딸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다”
고 했던 김선미 사모(예원교회)의 소
망은 벌써 이루어져있었다. 주의 일
을 감당하며 알게 모르게 생겼던 아
픔들은 공황장애, 우울증, 갱년기, 부
담감,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사모들
을 힘들게 해왔다. 하지만 무조건적
인 사랑과 섬김을 듬뿍 받으며 지내
는 광에서의 시간은 그들에게 자유
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다.
김인경 사모 또한 (소망교회) “광에
와서 좋은 것들로 대접 받으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
하심을 느낀 2019년의 광을 평생 잊
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치유와 회복
의 능력은 둘째 날 저녁의 세족식&
애찬식의 시간이었다. 사모들은 총
18명의 광온누리교회 여성도들이
각 사모들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발을 씻기시고
위로하심을 느꼈다. 유애순 사모(가
나안교회)는 “사역을 하며 성도들에
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는데,
광온누리의 성도님께서 제 발을 씻
겨주실 때 그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정주 사모

(좋은우리교회)는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이 제 발을 씻겨 주셨을 때 마치 엄마가 제 발을 씻겨주시는 것 같았다”며 “작년에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풀리지 않던 마음이 이번에 풀렸다”고 전했다.

18명의 사모들과 18명의 꾀온누리교회 여성도들은 세족식 후 애찬식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잘 하고 있다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아내로써, 엄마로써,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애쓰고 있다고. 백마디 말보다 한번의 뜨거운 포옹 속에 서로를 향한 축복과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설 만한 물가 4기의 사모

들뿐 아니라 꾀온누리교회의 여성도들도 회복되고 있었다.

이사리 집사(설 만한 물가 팀장, 꾀온누리교회)는 “지난 3월부터 설 만한 물가를 위한 바자회 등에 참여하며 이 섬김의 사역을 함께 한 꾀온누리의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며 “바쁜 가운데도 세족식에 참여해주시고, 숙소 청소 및 준비, 식사 준비 등에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됨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한 이 행사를 기획한 김은주 사모(꾀온누리교회)는 “이번 설 만한 물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떠오른다”며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 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향

아리에 물을 채운 종들처럼, 우리 교회의 작은 섬김과 순종에 모두가 넘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형철 담임목사(꾀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미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회복이 필요한 사모님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다”며 “이곳에 모였던 사모님들의 회복이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 얼마나 큰 사랑과 섬김의 영향력을 발휘할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제 이 섬김의 릴레이는 전국 18개의 교회로 확대될 것이다. 각 지역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것

이다. 김미영 사모(함께하는교회)는 “품어도 품어도 안 되는 가정을 미워했던 마음은 버리고 제 안에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흘러 넘치게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진아 사모(로하스자연농원교회)는 “개척교회를 몇 번 하며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 시키신 이 시간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를 위해 뛰어보리라”고 밝혔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예수께서 걸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갈 18명의 사모들을 응원한다.

김명선 통신원

엘에이

Fall Festival 2019



지난 목요일(10/31)에 우리 LA온누리교회가 참 분주했습니다. 조명과 무대를 설치하느라 바쁜 본당과 차량을 꾸미는 손길로 봄비는 교회 주차장, 매해 가을마다 진행되는 홀리윈 Fall Festival 때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두 가지의 새로운 사역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Farting Angels” 방구쟁이 천사들 뮤지컬과 “Trunk-or-Treat” 주차장 행사입니다. 이전 홀리윈(Holywin) 행사와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이유는, 맥아더공원 주변 이웃들을 초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이름도 기존에 썼던 ‘Holywin’ 이 아닌, 좀 더 대중적인 “Fall Festival” 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대략 600명의 이웃들이 이날 저녁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맥아더공원 주변은 많은 부족함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재미있는 Fall Festival 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복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차량을 꾸미고 뮤지컬을 준비한 손길들로 인해,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LA온누리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지역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지 기대되고, 또 소망해 봅니다. 함께 섬겨주신 성도님들과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LA 온누리교회

얼바인

주님 안에서, 내일은 희망이요 소망이다!

얼바인 온누리, 추수감사절 맞아 Family Worship 드려



얼바인 온누리 교회 (담당 박신웅 목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11월 24일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Family Worship을 드렸다. 이번 Family Worship은 어린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사역자들 준비한 스킷과 차세대 전도사 두 분의 영어 설교가 이어졌고 박신웅 목사의 설교로 마무리됐다.

스킷에서는 사역자들이 영화 토이스토리의 장난감으로 등장했다. 한때는 사랑받는 장난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의 인기가 시들고 찾지 않게 된 그들이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해 주고 보듬어주는 모습을 코믹하게 선보였다. 초등부 유니스 전도사는 '아무도 나를 보살피고 신경쓰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재밌거나 성적이 좋다고 이유를 들어 나를 사랑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자'고 전했다. 이어 중고등부 다니엘 전도사는 '음식을 풍족하게 나누었던 땡스기빙을 기억한다'며 '가족은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해도 서로 믿고 사랑하는 존재들이라며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다'며 '내가 부족하지만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자'고 말했다.

박신웅 목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첫째, 익숙함 속에서 잊고 있던 감사함을 꺼내자.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둘째, 부족함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꺼내자. 마음의 눈을 들어 나를 볼 때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현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감사의 순간 일 수 있다. 셋째,

기대감 속에서 감사를 선포하라. 오병이어의 현장과 나사로의 죽음을 이겨냈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로 기적을 이루어 내셨음을 기억하자.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내일이 희망이고 소망이 될 때 보잘것 없이 작았던 우리의 이야기는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His story가 될 것이라 선포했다.

이 날은 특히 온누리 교인으로 서약을 하는 입교식과 성인 세례 및 유아 세례가 함께 진행돼 기쁨이 배가 되는 시간이었다. 예배 후에는 공동체가 함께 준비한 터키와 햄이 제공되어 성도간의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진아 객원기자

뉴욕

2019 일대일의 날



2019년 11월 11일 일대일의 날을 기념해 각 주일 예배 후, 가르치던지 배우던지 한 영혼 제자 삼는 일대일 양육자들을 위로하고, 또 배우고 싶어 하는 동반자들을 격려 하는 일대일의 날이 열렸습니다.

“일대일은 사랑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정을 나누며, 일대일 사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나누었다. 일대일을 통하여, 양육자와 동반자 모두 은혜받고 도전받고 신앙 성장이 되었다는 말을 들

으며, 문성아 집사(양육본부장)는 동반자와 찍은 사진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몽클해졌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그 삶을 살아 가도록 돕고 또 함께 하는 귀한 사역임을 알게 되었다는

대학청년 & 청년부 성도들도 있었다. 하나님의 한영혼 제자 삶은 그날까지, 제자 훈련에 힘쓰는 IN2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IN2 교회

추수 감사절 찬양예배

뉴욕 인투 온누리교회는 추수 감사절을 맞아 꿈땅 어린이 찬양팀 SHINE과 함께 찬양예배를 드렸다.

이번 예배는 SHINE 한수영 선생님의 찬양인도, 꿈땅 주니어와 시니어 선생님들, 학생들이 찬양팀과 가스펠 콰이어가 되어 어린 예배에 함께 찬양인도를 시작으로 심상현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감사절 예배를 보냈다.

특히 청년부의 “열 문둥병자”이야기의 스킷과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를 보여 줌으로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감사해야 함을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하나되는 예배의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찬양소리가 울려 퍼질때, 또 어린이 친구들과 어른 친구들이 함께 예배 할 때, 인투 교회가 꿈꾸던 3대가 함께 성령안에 예배 하는 공동체가 실감이 되어지는 순간이었다.

한국어와 영어가 공존하고 두문화와 세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 하시며 말씀들을 통해 감사할수 있게 되는 순간이었다.

IN2 교회



보스턴

보스턴 온누리교회, 할렐루야 파티

할렐루야 파티로 할로윈 잇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한 시간

보스턴온누리교회는 지난 10월 31일 할로윈에 “Holy Ghost is with me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라는 주제로 어린이들과 함께 ‘할렐루야 파티’를 진행했다.

약 70여명의 예꿈, 꿈땅의 어린이들과 20여명의 봉사자들은 할로윈 특유의 어두운 문화에 노출되어 밖을 떠돌기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며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주제에 맞는 예배와 크래프트, 그리고 게임과 스넥, 페이스페인팅 등으로 스테이션들이 준비되었으며, 어린이들이 각자 원하는 곳에 가서 활동과 간식시간 등을 가지는 것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땅 어린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나(서재욱 전도사)는 이날 설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

리스도 한분을 잘 간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 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있다”는 것을 전하며 “이러한 주님의 뜻을 더욱 더 아는 할로윈이 되자”는 도전을 주었다.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와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꿈땅의 허민 전도사는 학령기 어린이들이 할로윈에 ‘Trick or Treat’ 을 외치며 친구들과 함께 밤거리를 다니는 것 이상의 기쁨과 재미를 주기 위해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준비했고, 이에 교회학교 교사와 파워웨이브 중고등부들이 참여해 아이들과 신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를 준비해보니 막상 교회 전체가 함께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고 꾸리는 자리였다. 이런 기회를 통해 온 교회가 어린이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더 생각하고 중보

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는 피드백을 남긴 예꿈 이현민 팀장은 교회 전체적으로 좋은 역동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하였다.

실제로 이 날 제공된 많은 양의 사랑과 간식들, Treat 등은 성인들과 학부모들의 도네이션으로 채워졌다.

눈에 보이는 Treat 이상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쁨이 아이들의 삶속에서 계속 이어지길 중보하였으며, 계속하여 세상 문화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대안을 생각하는 귀한 기회였다.

서재욱 전도사

샌디에고

계시록이 두렵지 않아요

큐티 나눔방으로 새로워 지는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

매주 화요일 오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샌디에고 온누리 큐티 나눔방이 매주 새로워지고 있다. 세 큐티 나눔방의 방장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 이민욱 담당 목사와의 목상 나눔과 공부부를 통해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잘못된 해석과 적용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나눔방의 방향을 정한다.

가을 레위기와 요한계시록은 신학적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해 평신도들에게는 어려운 본문이었다.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나눔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 큐티나눔방은 어느 때보다 레위기와 요한계시록을 은혜 가운

데 큐티 할 수 있었다. 담당 목사의 인도 아래 진행된 큐티 방장 공부시간은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와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많은 상징과 묵시로 가득찬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이며, 인내와 소망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책이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주님을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

샌디에고 온누리 공동체가 하



나님 안에서 말씀과 묵상으로 더욱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레위기와 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

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김은정 특파원

뉴저지

새가족 만남의 잔치



뉴저지 온누리교회(담임 Marc Choi 목사)는 10월 6일(주일) 새가족들을 위한 만남의 잔치를 열었다. 2019년 6월~9월 기간 중 새가족 교육 과정을 이수한 95명의 새가족이 참석하였다. 이번 새가족 만남의 잔치는 전보다 1.5배 정도 많은 새가족이 모이게 된 축복의 자리였다.

이 날 행사에 순원들이 함께 하여 새가족들이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지체가 됨을 감사와 사랑으로 맞이하였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였다.

준비된 순서로 아름다운 식탁 교제와 웃음 가득한 레크레이션의 시간은 새가족과 순원을 더욱 친밀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었다. 그리고 Violinist 윤정원, Pianist 김흥규의 연주로 따뜻한 감

동의 분위기는 더 깊어져갔으며 Marc Choi 담임목사의 교회 소개와 비전을 나누는 시간은 모든이의 마음에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을 확인시켜주었다.

민 융 새가족 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교회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새가족분들의 말씀이 가장 감사하였고 뿌듯했으며 교회 사역자와 교역자 그리고 많은 새가족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일수 있음에 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전하였다.

장동원 목사

산타모니카

산타모니카 온누리, 리더십 수련회



지난 11월 8일부터 9일에 산타모니카 온누리 공동체(정장철 담임목사)는 1박 2일동안 리더십 수련회를 가졌다.

새롭게 세워진 순장들과 MC단 그리고 차세대 교사들, 예배팀이 함께 어우러진 은혜로운 교제 시간이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묶어주시는 시간이었다. 참여한 몇몇 지체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먼길을 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친구와 함께 가는거라는 속담처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들과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아시고 서로를 누구보다 이해할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든든하고 풍성한 격려를 받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아름다운 시간이었기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성인순, 이유진 자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걷기 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모여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했던 시간을 통해 많은 위로와 사랑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모두가 겸손 안에서 탁월하게,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예배 하며 섬김의 기쁨을 오랫동안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청년부, 홍은혜 자매)

“어렸을적부터 교회에서 섬기는것을 당연하게만 느꼈었던 여러 자리들을 섬기면서도 사실 내가 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섬기고 있는지 잊고 그저 익숙하게만 그 자리를 지

킬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하게된 리더쉽 수련회를 통해 내가 왜 이 자리를 섬기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배우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특히나 처음으로 하게된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면서 그때 그 마음과 배움을 꼭 간직하고 앞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싶다.”

(청년부, 정수민 자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맡기신 지역과 열방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산타모니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한다.

진영국 목사